

도자기 필통과 옥수수 속대 빨뿌리

김정환
시인

공예가 형수가 허겁지겁 챙겨 주느라
구경(口徑)이 너무 광대한 청자색 도자기 필 통을
역시 선물 받은 다발 연필과 다발 색연필과
아메리카 인디언 편지 칼과 스페인산 검은 이슬람 무늬
철부채와 사전용 막대 돋보기 세워 채우니
그
미리 깎아놓은 울울창창 죽창의
약몽을 벗어났다. 아니 그게
아직도 있었나? 찢리는 것보다 찌르는
약몽이던 그게?
숫구침이 너무나 조용한 경악이다.
큰아버지 근기(近畿) 하천 그물질 한 번에
양동이 넘치도록 걸렸으나 이제는
근기 유원지 식당에서도 값이 `시가`로 매겨진
쏘가리매운탕 어감도
숫구침이 너무나 조용한 경악이다.
진공청소기 되게 떠든다. 제 혼자 세상이고
세상에 청소만 한 게 없고 청소하느라
일생을 소모하는 거라는 투다.
종이신문이 세계관처럼 펼쳐지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내가 나를 Search하는 나의 고독인데 내가
고독이라는 말을 모른다.
고장 난 인터폰을, 그때 생각 난 말 `요비링`이 썩 관찮아서
아직 안 고치고 있는 정도. 내가 아는
내용이 호탕했던 사람들은 너무 크게 얻어 맞아 그리
길길이 뛰다가
눈에 보이게 죽었거나 안 보이게 사라졌다.
그래도 나는 그러기 전 날 그들에게

한 급 높은

잡탕밥 한 그릇씩은 유언으로 얻어 먹었다. 그래서

40년 전인데 늘 어제의

잡탕밥이고 요비링이다.

천재 아니라 천재 할아버지라도 남이 흠집이 먼저 보이고

그것만 보이면 뭔가를 창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오랜 세월의 천재다. 그들 위해 경약의

꽃다발 폼다, 팍 찬

도자기 필통.

Corncob pipe는 corncob pipe, 옥수수 속대로 만든

담배 빨뿌리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야전 사령관으로서 애용했고,

정말 좇 만하다. 어찌나 그런 지

그 안에 아주 많이 아주 깊이

숨어 있다.

이를 떼면 자연의

쓰레기 활용. 도시 감각 보들레르 곁에

아직 있는 늙은 농촌 창녀. 11차원의 스티븐

호킹 너머 여성의 가정 폭력에도 불구하고

모음(母音)의 집과 11 차원을 4차원으로

응축하는 고전의

새로움을 위한 가벼운 깊이.

파탄 속으로 몸을 숨기는

재능과 우월.

속지 없이 부서져 더 새까만 비닐

명반 중에도 명반.

멀리 가기 위하여 미리

느슨할 필요 없지. 미리

감격할 것도 아니다.